

고고의 지속 - 죽음과 대처하는 안창홍

쿠로다 라이지, 『끝없는 근대 : 아시아 미술을 걷다 2009~2014』
(grabook, 2014년)에서 pp. 176-8

2002년 부산 비엔날레에서 인물사진을 수집 장 나열한 작품이 있었다. 사진은 손으로 수정되어 있어 모두 눈을 감고 있었다. 자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내성이나, 강제나, 아니면 죽음이나. 노란색은 퇴색된 사진인가. 황천색인가 -아마도 이것이 안창홍 작품과의 첫 만남일 것이다. 이후에도 형광색같은 독한 색채와 폭력과 죽음을 마주하는 텐션으로 그의 작품을 볼 때마다 생각에 잠겼다. 2010년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소장품전을 열었을 때 안 작품을 포스터로 사용한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그 임팩트 때문이다.

2010년 5월 안창홍에게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나바 마이(당시 국민대학교 학생, 현 광운대 교수)의 협조로 서울에서 전철로 한 시간 정도의 스튜디오를 방문했다. 이 지역에 사는 농부를 모노크롬기법으로 알몸을 그린 대작 회화와 그 외에도 제작 중인 시리즈가 있었다. 칠칠치못하게 성기를 드러낸 모습,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듯한 포즈로 바닥에 물감 자국이 있는 지저분한 아틀리에도 그대로 그려 넣은 인물상은 등신대를 뛰어넘는 모뉴멘탈한 사이즈와도 맞물려 혐오감을 자아내기는커녕 침범할 수 없는 숭고함을 기리고 있었다. 벽에는 파랗게 질린 청년과 옆에 기대어 남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있는(성기를만지고있는) 젊은 여성을 그린 작품 <우리도 모델처럼 3>(1991년)이 있었다. 작은 화면, 외설적인 이미지에도 아찔한 눈빛과 당돌한 조형은 한순간 보았음에도 기억에 남는다.

이 밖의 작품에서도 성, 폭력, 죽음, 그리고 배변에 이르기까지 이미지가 꺼리면 꺼릴수록 그것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작가 정신의 강도, 이런 아주 때서운 시선의 작품은 전 아시아에서도 귀중하며, 대규모 설치보다도, 큰 돈을 들인 영상 작품보다도 훨씬, 법도 상식도 초월해 우리의 정신을 변혁시킨다.

사진을 사용한 작품에서는, 망한 사진관으로부터 입수한 익명의 사람들의 가족 사진, 졸업 기념 사진등을 잘라 연결하거나, 망령 같은 얼굴을 하거나, 나비나 파리를 붙이거나, 선인에 대한 경의나 사자에 대한 추도나 감상을 철저히 부정한다. 손으로 그린 것으로 눈을 감게 하거나, 반대로 크게 뜨게 하거나(생자라기보다는 로봇의 눈이다), 삶과 죽음의 전환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논다. 부자의 옷을 입은 여성들 역시 그로테스크하고 끔찍한 것으로 바꾸어 버린다.

역사적으로 1952년생인 안창홍은 1980년대 고양된 민중미술의 세대이자(민중미술로 첫 콜라주를 시작한 것은 그라고 한다), 같은 시기 부산에서 일어난 형상미술의 일익을 담당했다. 언뜻 보기에 불온한 작품이라 안은 안기부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었지만, 사실 그의 작품에는 시사적인 주제나 특정한 메시지를 호소하는 것이 전무하기 때문에 작품이 압수되거나 작가가 구류되는 일은 없었다. 그의 작품이 눈앞의 정치문제보다는 일찍독립하여 세상밑바닥을 지낸 청소년기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인간의 본질적 비극성과 아이러니를 전달했기 때문일 것이다.

2년 후에 서울의 갤러리에서, <우리도 모델처럼 3>과 재회했다. 이듬해 같은 갤러리를 방문했

을 때는 그 작품이 팔렸고, 24세 때 그린 <무제>(1976년)가 걸려 있었다. 혼자 와인을 마시는
정장차림의 젊은이가 안주고 삼고 있는 것은, 메마른 개구리(진짜가 붙여져 있다!)이다, 아무
리 모던한 스타일을 가장해도 절대 모던할 수 없는 인간. 40년 가까이 남은 시대를 사는 우리
도 여전히?